

내년 국가예산 1조원 달성

군산시, 새만금SOC 예산 삭감 악재 속 결실 이뤄내

군산시가 2024년도 국가예산 1조467억 원을 확보하며 9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달성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이 지난 21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2024년도 국가예산 1조467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6년 최초로 1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이후 9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한 것이지만, 새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SOC 예산의 대거 삭감으로 인해 전년 대비 확보액이 줄어든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만금SOC 예산의 경우 부처요구액이 전액 원상회복되지는 못했으나,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3,000억원의 예산이 복원 돼 새만금 SOC 사업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은 신규 사업 22건에 764억원, 계속사업 254건에 9,703억원 총 276건 1조 467억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급변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482억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 25억원(총사업비 490억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 47억원(총사업비 287억원)이 반영 됐고, 이와 더불어 국가핵심기술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착수되어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써 발돋움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4도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의 신규 7만 예산 30억원(총 410억원)이 추가 반영돼 산단 인접지역과 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총사업비 147억원) 또한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 되어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군산시 주요 R&D사업 중 하나이며 군산형일자리 사업인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팅 플랫폼 개발 사업의 경우 R&D예산 삭감의 여파 속에서도 121억원이 반영돼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또한 국회심의를 거쳐 반영돼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도 조급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새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SOC 예산 삭감으로 어려운 때보다 치열한 시간들이었다."며 "새만금SOC 예산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 문제 등 아직 남아있는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 또한 "군산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군산 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부처요구액의 70%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복원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26일 '2023년 하반기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형일자리 상생 협동회의

노사민정 대표 50여명 참석... 계획 발표 참여기업 승계 등 진행

군산시는 26일 '2023년 하반기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협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참여기업 노사관계자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총괄진행사항 보고와 참여기업 별 추진사항 및 계획 발표 참여기업 승계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올 한해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추진 내용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운영으로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촉진했으며, 임금관리위원회 및 공동면접 활동을 통해 적정임금을 도모하는 등 상생협약에 기초한 사업이 이행됐다.

또한 미래차 관련 국가공모사업 및 R&D사업 추진으로는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와 엔지니어링 협업공간을 구축, 설계·해석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기술고도화에 기여했다.

특히, 전기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기술을 확보했으며,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중소형 전기 상용차급 스케이팅 플랫폼 개발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KG모빌리티(주)에 인수되면서 에디슨모터스(주)에서 사명을 변경한 KGM커머셜(주)가 참석해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승계를 공식화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2024년 새해 사자성어 '동심공제(同心共濟)' 선정

익산시, '시민과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 는 의미 담아

익산시가 2024년 시정운영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동심공제(同心共濟)'를 선정했다.

동심공제(同心共濟)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로,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민선8기 익산시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선정 등

급격한 사업들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기쁨과 희망의 도시로 발돋움했다.

시민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 사업은 2023년 다이로움 택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등 다이로움 행복정책으로 연계·확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23 익산방문의 해를 운영하면서 서동축제와 익산문화제 야행,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NS푸드페

스타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등 익산만의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결합한 축제·행사들을 훌륭하게 치러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2024년에는 익산시가 공멸여 준비해 온 신청사 개청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등 핵심사업들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자기신청장학금' 성과공유회

26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공동이사장 김임준 이항근)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자기개발연수 자기신청장학금'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자기신청장학금은 군산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스스로 탐구영역을 정해 계획을 수립하면 탐구연구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첫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200여명의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자기주도적인 진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원받은 장학금으로 역사 탐방 버스노선 만들기 프로젝트, 가이름 발레, 코딩, 유리공예 등 다양하게 활동했던 탐구 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과 영상으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다음 연도 시행

하는 해외 문화탐방의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학생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이 활동을 통해 무언가 해보고 싶고 할 수 있었다고 느끼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행복주택 200세대 공급

익산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자해 제3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부지에 행복주택을 지난 5월에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10층 규모의 3개 동(25㎡, 36㎡, 44㎡)규모이며 단지 내에는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다.

시는 27일부터 오는 1월 4일까지 제3일반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를 전용면적 기준별로 25㎡ 80세대, 36㎡ 80세대, 44㎡ 40세대 등 총 200세대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공급되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문산업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종사자 가운데 무주택 요건과 일정 수준의 소득·자산요건 등을 갖춘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근속자)가 입주 자격을 가진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며,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2~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1천500만원~3천1백만원까지, 임대료는 월 8만~17만원까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교환 제도를 활용해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지원 우수

익산시가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도내 긴급복지지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실적 평가,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현재까지 284건의 긴급복지를 지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55건을 발굴 지원해 총합 909건의 지원량 구축에 앞장섰다.

특히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이 초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익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해 수혜 범위를 적극 확대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읍면동장 책임제, 이웃에 돌봄단 A팀부터 B팀, 1인가구 안부살림 서비스 익산 주면(ZOOM-IN)특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재단을 내실 있게 이끌어갈 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26일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1일 공청하고 투명한 임원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 7명이 참석해 임원의 모집 인원, 자격 기준, 모집 방법, 공모 일정 등의 공개모집 계획안을 의결했다.

비상임이사는 재단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재단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및 제안·자문하는 역할을 통해 재단의 내실화에 기여하게 된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감사는 재단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의 감사·감독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